

석유화학, 인디아 진출 활성화 추진

수출입은행, 현지 한국기업에 1억5000만달러 지원 ... 운영자금 대출도

수출입은행이 인디아에 진출한 국내 석유화학·자동차 등 유망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인디아 뉴델리에서 액세스 은행(Axis Bank)과 1억5000만달러의 투스텝 복합금융 계약(Untied Two-step Loa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월26일 밝혔다.

투스텝 복합금융은 현지의 은행이 수출입은행이 설정해준 신용한도 내에서 국내기업 등에 운영 등의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액세스 은행을 통해 1억5000만달러 한도에서 인디아에 진출한 한국계기업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액세스 은행은 인디아의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과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금융에 강점을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국내기업 중에서 자동차와 석유화학 관련기업의 인디아 진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6>